옥누몽 권지이

원왕침상 몽은복 연노졈졀졀낭우

차시낭즁뎌쳐편글소릐울화답허여조근갈의낙산
복울외옹ㄴ기음이동셔상응허여일쟝일화허나
쳐셩은옥탕허여옥반의주슬을구을나난듯흔동셩
은호탕허여졀쟝의도쳥울울니난듯반향울슉
쳥허더니쳐셩이졋치ㄷ물와의박탁허눈소릐나라
늘금쳐밧비나아가보니일리슉쳐물의졋시여욱
셩안의젼치돌을허ㄷ묘신이발월허여진쇠인
갓지아니옥젹강션이자금쳐크게반겨ㅣ마른왈밥
이깁ㄷ리더란이졈ㄴ허거슬어더허션슉혀

강남인물이쳔하의스븐나산쳔슈려을응ᄒᆞ여
ᄂᆡ로다남ᄌᆞ의려녀자갓든라ᄲᅡᆫ다ᄒᆞ나엇ᄯᅴ쟈갓
치아리션운져잇난ᄃᆞᄒᆞ여축자붓을ᄒᆡᆼ운어ᄃᆡ로
가난힝셕이초공져당을졔ᄂᆞᆫ여탐인으로황셩
복거ᄒᆞ라가더니ᄆᆞᆺᄎᆞᆷ이ᄉᆞ의쳔현져잇기와다가축
인이얇기ᄃᆡ련의두ᄃᆞᆨ을ᄃᆡ고라슉져소왈남이야
평슉상봉은이갓치거이ᄃᆡᄒᆞ니부유갓흔인셰의도
븐일이라열븐이업다ᄒᆞ여ᄌᆡ오고져나ᄌᆡ월셕을무
륙이보내되오ᄂᆞᆯ즁의두어납글편이잇ᄃᆞ달여온ᄃᆞᆫ
자잇시니일ᄇᆡ로ᄌᆞᆼ을ᄒᆡᆼ이슈인되아닐손냐ᄒᆞᆫ져
쇼왈ᄂᆡ뒤ᄇᆡᆨ곰션의축뎡이엽슈다ᄒᆡᆼ이ᄎᆡ음상
별의평다이쳔ᄒᆞ여엇지마다ᄒᆞ리오ᄆᆞᆫ나는

몬져이슌의잇ᄂᆞᆫ향은ᄃᆡ이여눌졔의ᄃᆡ졉못
ᄒᆞ니만ᄒᆞ여라연좌의낭인이ᄀᆞᆺᄂᆞᆫ그슈ᄒᆡ돈을너여
동츈ᄅᆞᆯ술을ᄉᆞ오되ᄒᆞ여슉욱의ᄉᆞ왓거눌낭인이
ᄃᆡ작ᄒᆞ여슉비을ᄲᅡ신후슉ᄌᆡ소왈우리이갓ᄒᆡ
모여자최을ᄌᆞ초ᄒᆞ미조흐니두어키시을지올거시
니향은가라치라연좌의공ᄌᆞ의부쳐을달나ᄒᆞ여
낭종의쇠ᄒᆞᆨ연을너여슉욱의월한의일슉시올
지은ᄂᆞᆫ 국방삼십향동헤
연우수ᄃᆡ쳐쳐미
빠조도부심화리도
변음ᄃᆡᆫ욕관졍졔
국방셜흔이향쿡동쇠의잇
슈니 네의비의누ᄃᆡ가ᄀᆞᆺ지회
비ᄅᆞᆯ조다 슉ᄭᅩᆺ슉쇠가부심라ᄋᆞᆯ
으지ᄆᆞᆯ나 소리ᄲᅧᆫᄒᆞ여다시옷
울다ᄒᆞ여울ᄂᆞᆫ졔ᄂᆞᆫ조다

공져 츌을 바다 져삼 옴영ᄒᆞ니 시리의 졍모 텀을
일카ᄅᆞ나 오직 즐이 쏘지 잇시믈 ᄃᆞ희(이)여 거져삼보ᄂᆞᆫ
츅ᄂᆞ의 복쳐을 횡ᄒᆞ여 화당 ᄅᆞᆯ나 가시의 왈
방츌 ᄒᆡᄂᆞᆫ 일이 ᄉᆞ(는데) 방즐난 ᄒᆡ ᄒᆞᄂᆞᆫ 날 어임의 빗겨
벽도 츄하 방츄가 벽도화 아릭ᄒᆡ 길을 찻나ᄂᆞᆫ
강남 키리 셔 연박 강남의 도라가ᄂᆞᆫ 츈이 셜 연이
지 변 뎐 당 불 졀화 (열어) 당만 졀당호 만 불은 꼿튼 보지 봇ᄒᆞᆯ 도다
츄젼 보ᄂᆞᆫ 한번을 ᄃᆞ허 활 연이 우어 왈 형은 시지 졔의 ᄡᅵᆺ
ᄒᆞᆯ 법이 아니나 연이 다 화지 ᄇᆞᆺ작의 벽도화ᄂᆞᆫ 쳐 지 졍을 일
오빈ᄂᆞᆫ 공져 쇼 왈 우연이 지으미나 파ᄒᆞ니 이 쇠 ᄒᆞ 흉 낭

가ᄇᆞ나 ᄉᆡᆼ각ᄒᆞ되 그 문장은 더 볼 거시 업ᄉᆞ나 그 ᄆᆞ음
을 다ᄉᆞᆫ 함ᄒᆞ여 리라 ᄒᆞ되 ᄂᆞᆷ은 ᄉᆞᆯ을 기우려 승ᄌᆞᆼ을 권
ᄒᆞ여 왈 이 가ᄉᆞ혼 날의 ᄎᆔ치 아니코 ᄆᆞ엇ᄒᆞ리오 ᄒᆞ기를 ᄋᆞ미ᄒᆞᆫ
즉 물ᄉᆡᆨ이 유명ᄒᆞ다 ᄒᆞ나 우리 이 좌 월ᄉᆡᆨ을 ᄃᆡᄒᆞ여 ᄎᆡᆼ
누의ᄋᆞᆯ 나 잠간 주졍ᄒᆞ미 엇더ᄒᆞ뇨 ᄒᆞᆫᄃᆡ 침음냥구의
의 왈 션비 쳥누의 놀ᄂᆡ 불가ᄒᆞᆫ 일이오 효형이 ᄂᆡ 동
시 ᄉᆞ져 ᄒᆞ면 별오 현 곳의 갓다가 ᄂᆞᆷ의 이목의 ᄃᆞ이ᄒᆞ게
보이미 두티 건대 중일 ᄒᆡ우스ᄆᆡ 될가 ᄒᆞ노라 ᄉᆞ져
쇼 왈 형의 말이 다 도ᄒᆞ도다 엣 말의 올ᄒᆞ되 논인의 ᄉᆞ
ᄉᆡᆨ지의 ᄃᆡᄒᆞᆫ이 ᄒᆞᆫ 나라 ᄉᆞ자경은 총ᄆᆞᆯ이 빙셜 갓고
나 효호 회를 갓가이ᄒᆞ여 동쥬를 낫고 ᄉᆞ마장경은 문

듕매둉셩샹을ᄒᆞᄂᆞ둉거샹주ᄒᆞ여엇지불을나잇시리
요슉려왈그난그려ᄒᆞ거니와셰강슉발ᄒᆞ여신의영슨
재울외여왕ᄂᆞ이보건ᄃᆡ중ᄒᆞᆫ죄러엇다가도부귀현후
잇는뎌만은니현이후별내놀아부귀공달의시죵
이여일편단을보앗나나공재슐왈예발의ᄒᆞ여엇
시뒤빈쳔지고ᄂᆞᆫ불가망이오조강지쳐불하당이
라ᄒᆞ니부귀공달보린슐을변ᄒᆞᄂᆞᆫ경박쟈의일이
라엇지이을본을오아라의심ᄒᆞ리오슉ᄒᆡ슐왈뎡
의발은홍륙뎡뎡ᄂᆞᆫ이여니와졔ᄂᆞᆫ본ᄃᆡ재조엽ᄂᆞᆫ
사람이라예발의현도ᄂᆞᆫ퇴부ᄒᆞᄂᆞ현신은퇴ᄒᆞᆫ
헌다ᄒᆞ니이라삼우존졔삼우라ᄒᆞ니흉부병방

고일에셔너읠을밤이깁ㄷ리충의실셕ᄒᆞ혀미이시
ㅣ변ᄂᆡ몸이앗기는도뢰아니라부ᄒᆞᆫ평화은병일노리
이ᄒᆡ여노라ᄒᆞ시면ᄃᆡ여숙주의손을잡ㄷ이월석을다생
보내고숙져글을지어음영ᄒᆞ니기쳥의왈
뎜뎜소셩령병하 쳐은벽운졈ㄷ헤ㄷ운탄는경
녹황시미쇄벽도화 경현ᄃᆡ 녹청의벽도화을강
티지바ㄷ다.
나식흠소간월리 어재오날방달보는손이
련신중새월중화여 젼셜이일즉이알가온데향아안
넌줄알니오
숙져글을읍ᄒᆞ매ᄂᆡ긔울별쳐로연이나가이은더노ᄅᆞ
키온뒤ᄯᅩᆺ지이시몰어ᄂᆞ못지못ᄒᆡㄷᄒᆞᆫ광이방중의드러
와누어숙주의외우던글다고ᄒᆡᆫ대을생각다가황연ᄃᆡ
각ᄒᆡ여ᄉᆞ손글우어쏠ᄒᆞᆫ낭의계숙을이ᄅᆡ도다

ᄒᆞ더니 창밧긔 기ᄎᆞᆷ소ᄅᆡ나 ᄂᆡ 연옥이 웃ᄂᆞᆫ도혀
와ᄂᆞᆫ 왈 죽인어ᄂᆞᆫ 쾌야로다와 공ᄌᆞ을 쳥ᄒᆡ시ᄋᆞ이다
ᄒᆡ더라 이ᄯᆡ 홍낭이 난공ᄌᆞ의 ᄉᆞᆺ즐 보ᄆᆡ 변복ᄒᆞᆫ
월앙의 긔ᄅᆞᆫ의와 ᄎᆞ어 ᄂᆞᆫ담의 그 지식을 알지라ᄂᆞ
와 지거ᄃᆡ 심ᄒᆡ여 박변 신세 ᄌᆞᆫ으ᄃᆡ 어여 물자 ᄒᆞᄒᆡ여
졈ᄌᆞᆺ 일ᄎᆞ시을 지어 잠간 죵젹을 알게 ᄒᆞᆫ도ᄅᆡ와 연
을 옥보니여 공ᄌᆞ을 쳥ᄒᆞᆷ ᄇᆡᆨ복을 벗ᄂᆞᆫ 단장을 곳쳐
ᄂᆞᆫ 문의 나와 기다리더니 공ᄌᆡ 연옥을 ᄯᆞ라와 이르니 홍
낭이 옷ᄂᆞᆫ 마지며 왈 쳡의 드ᄅᆞ오미 더듸여 공ᄌᆞ로 ᄒᆞᆫ다
ᄂᆞᆯ 비상이 ᄒᆡ시게 ᄒᆞ니 불민ᄒᆞ도소이다 연이 낭을
월아의 쇄골이 쳔ᄌᆞ을 ᄉᆞ라사시 ᄎᆞᆺ조 일ᄒᆡ시어지
라ᄒᆞ니 이ᄯᆡ 공ᄌᆡ 답소 왈 ᄐᆡ쇠 봉츙이 ᄅᆡ 뫼시 상봉

별이도시다 몸이라 삼강천상의미언으로연녀합
도봉즁이올긔졈쇠잘하여숙즈로사렴토옴이오로
탕부평하여장즁의호령되답다호령이장즁되
물니기다셰본변하여오모다하현대몽이로다낭인
이대초하든당의불나좌졍호후홍낭이엿옹왈텹
이장개로노득장화의본색을감초지못하여노되
로연아하든반나니안의변복을하여나군즁의응텹
하실벽이업노로계주한소회는랑즁의날난숏치
흑홍의선더지매진토의못친욕이당하올일되
아니되셔셔산뫼이지숙즁난이라일인의지의탁하든벡
녕을거식든뫼텹셔자이졔주재일언의즁하

시믈알기지아니신륙쳡이살한편비의험을
다허지니심년쳥누의일은뎐ᄃᆞ심을별괴아니허여
축연을비를가히니어다발슴을맛제무안식이허
완허ᄃᆞ소허강리허니공제훈변이나아가졍륙왈니비
죽호당현남졍아신의울이나어지담화당평
의복졍헤를볼바아오월비상의함원이죄께글
티옥홍낭이소헤활월일시연회의쳔헌몸을거두
시져우샹이옹로서버은혜을이즈리잇가아리꼬러
이다공손의평생이엇지져러듯시호ᄒᆞ시비낭의
졸당의옹죽무반의즐기심이페서나이잇가공겨
강변왈남나는분키며황인이파낭진이구즐혜오혀톡

보지아니새나집이빈한ᄒᆞ여방면된ᄉᆞᆺ으로공ᄇᆡᆼ을ᄉᆞᆺ
두근황셩의부거ᄒᆞ러니춍노의외도적을만나의복힝
자을일ᄏᆞ젼진ᄒᆞᆯ방이이업더니ᄉᆞᆺ참령춍의두
ᄐᆞᆨ혀다가알ᄀᆞᆼ졍연회을ᄌᆞ랑ᄏᆞ져가다가ᄂᆞᆼ을만
낫서니이ᄉᆞᆯ한인연이티연이나ᄂᆞᆼ은어ᄃᆞᆫ스람이며셩은
부어시ᄂᆞᆫ홍이라업와ᄒᆞᆸ의셩은사서오셩리삼셰의
산ᄅᆞᆼ의ᄌᆞ젹어리나ᄂᆞᆫ춍의부모을일ᄏᆞ련、효바라
가형슈의랄이미ᄇᆡᆼ도의게박ᄒᆡ여ᄭᅵ차헌지라그러나
ᄋᆡᆼ름이ᄂᆞᆫ이ᄒᆞ여범부슈ᄂᆞᆫ의게ᄒᆡ신ᄒᆞᆯᄉᆞᆺ지엄쇄
형ᄆᆞ의ᄂᆞᆫ지심년의열인이ᄒᆞᆯ라ᄒᆞ나제거울맛나긔
몬ᄒᆞ엿더니이제증ᄉᆞᆫ을만나ᄇᆡ치ᄒᆡᆼ이ᄇᆡ록안목

허가꽃불으니되어녹삼으되잇난초홍이뒤엿ᄂᆞᆫ이라
이십복지잘이잇셔열보한평수여러흡은오ᄂᆞ왓건대
복홍의ᄂᆡ불너비당초례을뫼셔녀공침선을빈교
ᄃᆞ리허니이마자셔본대홍의위인을사랑ᄒᆞ여규녀의
풍도잇시믈가련ᄒᆞᄂᆞᆫ지라디회허락ᄒᆞ고홍을다려
ᄃᆞ비당의ᄃᆞ려와초례을불너왈네ᄃᆞ척히잇시블으뵈
근심ᄒᆞ더니강남홍이졔집이봉오ᄒᆞ라ᄒᆞ여너을쫏ᄎᆞ
로옹이게ᄒᆞᄒᆞ여굴도리오며침션ᄂᆡ공을ᄇᆡ호게ᄒᆞ거고뵈
대락ᄒᆞ엿시니갓치거ᄒᆞ게ᄒᆞ라초례신의생각ᄒᆞ대홍
운창기라비록그져존은잇다ᄒᆞ나어지ᄒᆞ유공ᄒᆞ의가기
이헐ᄇᆡ리오ᄒᆞ여너심의불열ᄒᆞ나양어복공의ᄒᆞ라ᄒᆞ
신ᄇᆡ라나작어웅병을나자셔대ᄒᆞ고어홍을불너각올

변자리울갓치허는구으변벼리울갓치허여듯
게빙나물한허다라일은집의도타와황셩간하인
의기와이지나시나우흠오죄여여물근심허며시기의
벼ᄅᆞᆯ빗츨바라보며초나복의일쇠형죄지져리
나홍이커이허너견후원의드러가완상허며후시황
셩간장되오는가허더니라연칭쥐일은봉서찰울맛
디울네는셜시의낭공졔홍낭울네별허는횡헐는
셰경는일는넘이홍울잇겨못밤울잉헌ᄌᆞ는강울
되허여졉울일은우지못우광초광이십여일은방의
황셩의일으니궁궐의장녀헝라시경의열오허
비상국변화허물일지리라긧던울평허여항나

회동ᄒᆞᄃᆞ연고평하의버ᄅᆞᆯ을쳐고미실노ᄅᆞᆼ
녹협석와유긔의터ᄒᆡ이나타ᄂᆞᆫ산우속에지과을만나이
나탕견의칼과셩쇼의거울이일시의향ᄒᆡ물일
으티온다ᄒᆞᆫ내간ᄒᆞᆫ동의외조에우어되녁부ᄎᆞ뒤와
세ᄇᆡᆨ누속의녕ᄃᆞ불ᄯᅢ허내셔호쳔가지편평긔와
국방심수의오욱ᄒᆞ던ᄌᆞ최인젼의삼ᄒᆞᆫ혀나ᄲᅮ다ᄋᆡ
납을바타ᄌᆞ쟝ᄒᆞ여소훈단쟝혈ᄒᆞᆫᄌᆞ금이파황ᄒᆡ
마기초주어ᄌᆞᆯ을월노평회을다놋ᄌᆞᆯ나주이바
파난바을생각ᄒᆞ여욕보방심을보롱ᄒᆞᆫ즐예쳔나왈
리의혜ᄂᆞᆫ혀평혀을잇제ᄇᆞᆯ나ᄂᆞᆫ엿여라
훙이보기을만ᄃᆞᆫ연편누쉬옷기술젹셔젼삼실패

보ᄂᆞᆫ 죡쟝ᄒᆡ 불이 거지 못ᄒᆞᆫ ᄒᆡ ᄯᆞᆯ이 업더라 쟝두을
불너온 ᄌᆞ심낭을 상쵸ᄒᆞ다 일다시가 불이ᄅᆞᄃᆞ라
ᄒᆡ여ᄯᅥᆫ여이 연옥이 브ᄒᆡ더 ᄌᆞ죡ᄒᆞ셔 쟝독을 보니여왓
다ᄒᆡ거ᄂᆞᆯ 홍낭이 약연실ᄉᆡᆨᄒᆡ여 ᄌᆡ루무연이라 션시
의 졀졍도ᄒᆡ당ᄒᆞᆫ 게롱차 편랑호졔기읍나ᄒᆞ라
션시의 황ᄒᆞᆫ셔방량지심다호셔저슴으로 앙강고리
의 ᄯᅳᆺ을 일우지 못ᄒᆞᄆᆞ 홍낭이가 ᄆᆡ네동ᄆᆡᆼᄒᆡ 물데ᄌᆞ줄
나ᄇᆞᆫ을 이거여 ᄌᆞᆷᄆᆞ 홍의 ᄎᆞᆯᄉᆡ헌 거질이ᄂᆞᆫ 의ᄋᆞᆷᄂᆞ슐ᄂᆞ
ᄶᅢ욱셩이 이변의 졍연ᄒᆡ나 ᄂᆞ복졍ᄒᆡ 불ᄂᆞᆫ 심슐여ᄋᆞᆯ
ᄂᆞ불ᄂᆞ너여 외ᄌᆡᆨ으로 리ᄇᆞ박지 못ᄒᆞᆯ지ᄒᆡ은ᄂᆞᆫ 이ᄋᆞᆯ
네여ᄂᆞ ᄆᆞᆫ음을ᄒᆞ 심ᄂᆞᄌᆡ 향음ᄇᆡᆨ낭라 ᄎᆡ단ᄇᆡᆨ필ᄂᆞᆫ 이며
잡룽ᄆᆞ물ᄭᅧᆫ을 가ᄌᆞᄂᆞ 일ᄂᆞᆫ 봉셔을 다ᄉᆞ거 보ᄂᆡ결셔

심복팅두을압송허니홍이쳐보고겨셕이
쳐상쳠담허여셩각허대황조셔비록방탕허나솔
힌흔암헌리아니라니일디기녀로하작지아니코도방
허물쾨여지아니코도로허이갓치달니믄그족의가장
기븐나강찻엇지허여변쾨디올쏘소량은인읍이라
존신의죽는거술슌양허면니조뢰아니올빗슨제헐즉
나의ᄯᆞᆯ근숏지언연지변은출허대올김을빈한의
답셔을다가회답을니그글의왈
항즉쳔기강남홍은초즉상승탐하의올니나니
쳥은본디심복변이잇셔나으로다슨쾨긋치재못헐
져라행일은승회의근최못터근오끼사괘울부르법셰ᄉ
디나죄족지아니신도로쾨상족시니그밧은을거

시아나오나소향은평ᄒᆡ재읍이라천기의ᄂᆞ상ᄒᆞᄂᆞᆫ도리
부모와달음업이업지라ᄂᆞᆯ고쥭시불ᄂᆞᆫ이친구불효막
디라황궁대쳐쵸소이라 자셔간파의부어시라ᄒᆞᆫ
홍에소족쾅득을쥭어보낸후은볼낙ᄒᆞ여도로부
쥭은의둘어가소ᄃᆡ쳥구의이로ᄂᆡ소ᄃᆡ사창을의지허
여불근비랑의원앙을ᄉᆞ노아쟘착ᄒᆞ여홍의근ᄃᆡ오
믈아ᄭᅦ못ᄒᆞ거ᄂᆞᆯ홍이가ᄉᆞ나ᄒᆡᆫ보미소ᄭᅴ셤ᄉᆞ의
곤순을쌥아빡셩쥭ᄂᆞᆫ이홍ᄂᆞᆯ을도ᄒᆡᄂᆞᆫᄃᆞᆺᄃᆞᆼ켠호
졉이꽃송이을여르ᄂᆞᆫᄃᆞᆺ쳥ᄉᆞ을조ᄂᆞᆯ을이여그ᄂᆞᆯ나ᄂᆞᆫ
대쥴놀ᄒᆡᆼ셩거ᄀᆞ동동ᄒᆞ네홍의셔름이라ᄀᆞᆯ어지ᄋᆞ음
울엽여와ᄂᆞᆯ소ᄭᅦᄉᆞ곳기의굴불ᄒᆞᄉᆞᆫ람의손희

잇시볼보로서나나가소졔경아허여도라보내ᄋ구어
왈홍낭에엉기로심회을소결코져허더니낭의게ᄋ으
비되도다연화의낭일에낭소졔ᄂᆞᆫ그슉그은다슬허셔뷔여
내일생원앙이쐇아허셔조으는형상에여줄홍이다사
보ᄂᆞᆫ안셕에허완허여이견앙을가로뢰왈져원앙서는나
네령현삭이잇셔ᄂᆞᆫ로어룰엉지이아혀나이제소랍의지
평해ᄂᆞ조신이ᄇᆞᆫ봇허여쾌이ᄂᆞᆫ음을입의뫼못허나엇지가편
치아나며오소졔굴이쏘괴잇시불의아ᄒᆞ여연고을묵
로ᄂᆞ홍이소ᄎᆞ스의검박허제헌불일ᄂᆞ이ᄅᆞ허내눈물
이ᄂᆞ화낭협의주으나시롭허난뒤되나화일지롤우의
져ᄅᆞᆫ토현뎡거질이대욕셜연오라헌니소졔여시축
연위조왈낭의져리는내엄의아는배니엇지롤그늬ᄃᆞ져

허난ᄎᆞ홍낭이쥭연지왈쳡은드ᄅᆞ니봉황이죽실
이아니면ᄆᆡᆨ지아니ᄒᆞᆫ다ᄒᆞ온이이졔고죽ᄃᆡ물브ᄅᆞᆫ쳑ᄋᆞᆫ
뒤울어지ᄂᆡ그지버ᄇᆡᆨ으물브ᄅᆞ가시덤블을갈으쳔
즉어지ᄂᆞ니라ᄒᆞ되어ᄂᆞᆫ쳘라여양ᄂᆞᆫ현빗치잇ᄉᆞ며눌초
홰리옹ᄉᆞ월붕니어지니낭의ᄉᆞᆺ즐보고되온우연실언ᄒᆞ
ᄢᅵ라연이아낭의거ᄉᆡᆨ이보살난ᄎᆈ지ᄉᆞ잇ᄂᆞᆫ듯ᄒᆞ니ᄀᆔ
너와의논ᄒᆞᆯ네아니나대인거ᄂᆞᆯᄒᆞ여보라훈이ᄉᆞ례ᄒᆞ더
파이쇄황ᄒᆞ셔홍낭의덩새을보ᄂᆞᆫ대조ᄒᆞ여생각ᄒᆞ
되졔불하인읍ᄒᆞᆫ기ᄎᆞ날을욕ᄒᆞᄂᆞᆫ졔ᄒᆞ니니어지범
으로속이지못ᄒᆞ리로다ᄒᆞ고침ᄉᆞ반향의다시ᄋᆞᆺ즌왈졔아
모리짐즛고양ᄒᆞ여옷슬식희낭졔글나ᄒᆞᆯ평졔믈라
위쳐의내쳐나지못ᄒᆞ리ᄋᆞ어지못ᄒᆞᆯ방약이업ᄉᆞ

죄오ᄒᆡᄂᆞ 오월오일을 줄저ᄒᆞᄂᆞ대 ᄒᆞ여 평토제ᄌᆞ
울 ᄌᆞᆯ비ᄒᆞ더라 오월 ᄌᆞ길이 되어 울ᄌᆞ 순거ᄒᆞᆫ지 ᄒᆞ여 ᄎᆞ
순일을 앙ᄃᆡ 강쳥의 ᄒᆞ승쳔ᄒᆞ여 ᄎᆞ으일ᄌᆞ토의 쳔당호의
보이자연이 아ᄒᆞᄂᆞ 강남홍다기 약을 거나 외오믈 ᄭᆡ과 별ᄒᆞ니
울ᄌᆞ션홍을 불너 황ᄌᆞ순의 편지를 보인ᄃᆡ 홍이 보ᄆᆡ
무어며 눈을 금이 위로ᄒᆞ나 홍이 불너 와 연일 부아 의
둘너가지 아니ᄒᆞᄂᆞ 울ᄂᆞ 불나구ᄂᆞᆫ 여 셩각ᄒᆞ여 ᄃᆡ 황ᄌᆞ의 복
도현이 일젼 편지와 앙ᄃᆡ 강쳥여 ᄒᆞᆫ이 ᄆᆞᆺᄎᆡᆺ시 어이 변
은 반다시 미를 극ᄒᆞᆫ 일이 잇셔 변치 못ᄒᆞᆯ지라 ᄒᆞ만 명창
파의 몸을 조ᄎᆞᆯ이 갈 ᄎᆞ리라 ᄒᆞ계 ᄀᆞ을 쳥ᄒᆡ 보ᄆᆡ 양음이 오
죨여ᄒᆞᆫ 연ᄒᆞ다 오직 낭군ᄌᆞ을 다시 보지 못ᄒᆞ니 유ᄒᆞᆫ ᄒᆞᆫ

일쳔란심의의면화ᄂ난거ᄅ션나ᄉ별의얼언이업스믈
이어지인졍이다오젼일갓던뎡둑을보내쥐방을다
뢰ᄅ수의울나부쳔을양생ᄒᆞᆫ희히ᄒᆞᆫ샤ᄒᆞ더난간을
거여아옐이쥭쳔의원별나ᄒᆞᆫ수출노쥐ᄒᆞᆫ마ᄅ블츠즉
이는히랑드산이아니뢴ᄂ나이우이로쿵ᄒᆞ다가퇴심실
의로라와스별쉐을쳬게삼보ᄅ뢰삼관셔다가온뢰의
나아가나쳔ᄂ불빅히더이동쟝이회ᄂ이발거ᄂᆞᆯ쟝두
을불너쉬간을ᄎᆞᄌᆞ매ᄇᆞ온빅낭을ᄎᆞᄌᆞ어진삼부락ᄒᆞ오
슈이란뢰오라부락을누쉬압흘가리올ᄒᆡᆺ다지못ᄒᆞ
더라이쉐황ᄂ셔부게을자평고쥐과ᄂ을성비ᄒᆞ여
물ᄂ일아비평경한의별을다ᄅ리랑ᄎᆞᄌᆞᆫ조ᄎᆞᆯ셔셜

쳑시셩여쳑을보실쥴혜여쇼졔가알을주희을
갯븐아비여시ᄃ복을치내형ᄌ하여강구일을음운에
홍을놀내ᄃ비단ᄉ대는디강을렴퀴시나강두의
구경터는젼ᄉ를갓터파을궁이황즈의오불듯
ᄃ홍낭을복즐나낭이복중의ᄃ를어가바ᄅ쇼졔궐
실의이ᄅ나쇼졔방재왈낭이무샹연ᄃᄅ숙일궐
퇴허ᄉ홍이쇼왈숙일궐쳑이한엉시퇄지알나잇
가쇼졔ᄆᄉᄂ을나북즐ᄃ홍이래왈쳡이쇼졔의딘
홍결허시믈입스와홍션토록좌우의뫼셔젼바ᄌ져셩
다헐가티터여ᄅ믈이시리라여나ᄯ이ᄉ별이되바라ᄅ
디쇼져ᄂ다일즈즌을바로스ᄯᄋ화을구히실제박녕현

아지못게이다 오날 노름이 구삼년ᄃᆞ이ᄂᆞ나가승
이쳥음왈 소ᄌᆞ가 ᄉᆞ홍을 ᄉᆞ보ᄒᆞ여 비고로 괴ᄅᆞᆯ 로괴
ᄒᆞᆷ인가 ᄒᆞ노라 소졔 ᄋᆞ연ᄒᆡ 왈 홍은 ᄂᆡ ᄎᆞᆼ ᄯᆞᆯ ᄒᆞᆷ이라
당ᄌᆞ의 욕을 아ᄂᆞ 밧을 이어 ᄇᆞ회ᄒᆞᆫ 너긔의 어부ᄌᆞ 혼이
되게 ᄇᆞᆯ오 소쳐 연화의 상연 ᄉᆞ죡ᄒᆞ여 울ᄌᆞ셔 븍연이
나가ᄅᆞ 욕을 볼 복ᄒᆞ여 몸 ᄇᆞ기 ᄋᆞᆨ을 강ᄃᆞ로 ᄃᆡ평ᄒᆡ
라ᄒᆞᆫ 쳔동ᄒᆞ의 어ᄅᆞ내 평ᄌᆞ셔 임의와 강ᄃᆞᆼ의 ᄃᆡ이
ᄃᆞ냥ᄌᆞ셔 ᄂᆡ 필ᄅᆞ구 홍의 ᄂᆞ오물 못ᄃᆞ라 울ᄌᆞ셔 외솔비
혹 나오나 ᄅᆞᆫ 일 실ᄒᆡᆼ으로 가 ᄀᆞᆼ우미ᄒᆞ되 ᄐᆞ 황ᄌᆞ셔
소 왈 그 병은 시ᄉᆡᆼ이 아니 이다 홍ᄌᆞ 병 기의 남ᄌᆞ나 ᄅᆞ
는 본ᄉᆡᆨ이라 ᄉᆡᆼ ᄉᆡᆼ 갓ᄎᆞᆫ 강ᄌᆞᆫ 으 지ᄒᆞᆫ 외 시ᄒᆞᆼ은 못소

기티나금일연ᄉᆡᆨ의슈단을보ᄂᆡ여근진슌어ᄒᆡ엿셔
쇼이부량ᄒᆞ고날나비와보ᄂᆡ져ᄒᆞᆫ숙녀의낭리퇴ᄒᆞ기
일낭쇼져을모라평ᄒᆞ여와일리ᄇᆡ인이나오니어홍낭
이라ᄒᆞ더든ᄂᆡ리ᄂᆞᆫ봄구름이온탄ᄒᆞ고ᄃᆡ목든인ᄉᆡᆨ은가
울안리병일을가ᄃᆡ옹룻담ᄒᆞᆫ련ᄒᆞ고ᄌᆞ를ᄎᆔ현모이어
녹ᄉᆔ복옹에가울쳐ᄅᆡ울쇄엿고세뒤양ᄒᆞᆫ롱을ᄲᆞᆫ난ᄃᆞᆺ
열술의병색이어옥거이혜ᄀᆞ아ᄅᆡ석와당ᄌᆞᆫ의안복
이현황ᄒᆡ믈쇠다ᄉᆞᆺ지꽃ᄉᆞᆫ나황ᄌᆞ셔우음을쇠여벗
베올으믈ᄌᆡ촉ᄒᆡ나홍낭이쳔상의올나촉ᄀᆞ파올을
녀황ᄌᆞᄉᆞ을보나오ᄂᆞᆫ자ᄌᆞ의각보올ᄇᆡ기우의비ᄉᆞ거실을
강ᄉᆞ하정의슈의일ᄀᆞ양ᄒᆞ을혜저ᄀᆞ쾌되의아ᄌᆞ쇠올쇄
ᄀᆞ난강의ᄒᆡ여한결을난독의결지ᄀᆞ금션을ᄂᆞᆫ

돌배취연이몽논하여홍낭을축사하니방일
헌거동라축독헌향옹이가히눈을씻슨죄지불지라
그러나마지못하여압회나아가몽듕에텰의형축혜
기울촛촌인온니황조셔젹왈소향낭축논인읍이라봉
여향녈압강평연셕의차회여에쳐도방하니이엇
거사상허는도리오홍낭이염옹소제왈키서도방헌
리는신병에금히이러나ㄹ되못허온지시여나와천평
의죄쇠가재라ㄹ존의분축연셕의천기의몸으로감
네허엿사이죄하나이요망녕되이라손물장을눈헙을
나죄듣이요괴기라하는거슨버인열지혜내힐실을
축희의논헐배엿거늘랑들이구ㄹ소쳥을괴희여

고집ᄒᆞ나 리외셰시타셰가지ᄂᆞᆫ 되엿거ᄂᆞᆯ 상공이 안후
랑ᄃᆡᄒᆞ야 ᄉᆞ방ᄇᆡᆨ슈ᄌᆡ평의 ᄉᆞᆼ수션ᄒᆞ와ᄒᆞ시ᄂᆞᆫ 최보울도
라보ᄉᆞᆫ 홍화ᄌᆞᆼ ᄇᆡᆨ셩을 이ᄅᆞᆷᄒᆞ시ᄂᆞᆫ 예졀노 홍도ᄒᆞ며
그몸이 비편ᄒᆞ나 ᄆᆞ음을 일편이 가지기을 경계ᄒᆞ시사
그편ᄒᆡ 붕ᄒᆞᆫ운이 여기서ᄂᆞᆫ 그ᄆᆡᆼ음이 으로리앙 살물 되소
리울ᄉᆞᆫᄒᆞ시ᄂᆞᆫ 도로ᄒᆡᆼ후 상을 나리시나 쳥이여 옥그ᄎᆞᆼ졀
줄아지 못ᄒᆞ니ᄋᆞ다 황ᄋᆞ셔 부연ᄒᆞ여 첨음낭수의 와ᄋᆞᆯ
리왕은 몽셜ᄒᆞᄂᆞᆫ이 ᄎᆡ 강욕의쳐 셜을 비엿시니 ᄇᆞᆫ일
도견ᄒᆡ 물ᄉᆞᆫ 양최ᄭᆞᆯᄂᆞᆫ 이의낭ᄋᆞᆫ 셔기야 울다리ᄂᆞᆫ 승셜ᄒᆡ
뷔이ᄊᆡ 강상의 바람이 ᄂᆞᆫ롱 슉거ᄌᆞᆫ 물결이 쳥ᄒᆞ며 ᄒᆞ며
쳔니의 빗최ᄂᆞᆫ뒤 빅구 흠흘ᄂᆞᆫ 가운ᄃᆡ 셜ᄎᆞᄂᆞᆫ

열ᄂ 현슉셩은노ᄒᆡ와상용ᄒᆞ니비반이앙주ᄒᆡ
ᄃᆞ순롱이길탕ᄒᆞ미황ᄌᆞ셔ᄒᆡ홍을이기지못ᄇᆡ헐
울치며기리노ᄒᆡᄒᆞ여가가와왈
홀미인ᄒᆡ여 미인을소을미여 홍슉홍ᄒᆡ여 홍ᄂᆞ우와ᄂᆞᆯ미여 봄
소록당이라 이로져 흐르ᄂᆞᆫ빗츨거ᄉᆞᆯ 나미앙이로다 지이앙셔ᄒᆡ ᄀᆞ즐거오물마
황주셔노ᄒᆡ을맛치ᄂᆞᆫ홍을도로보아ᄒᆡ답ᄒᆞ라ᄒᆞ니
홍낭이ᄉᆞ양ᄒᆡ아니ᄒᆞ고노ᄒᆡᄒᆞ여기가와왈
범쳥하이경도ᄒᆡ여 말ᄒᆞᄂᆞᆫ몰졀의쳐경도ᄒᆡ을ᄒᆡ여
안욱홍ᄒᆡ령우쟝이라 연여의단홍이보몰가여난초잇더라
슉홍뒤여호구ᄒᆡ여 슉홍이ᄅᆞ즉보다 그미여
탁홍신지ᄃᆞ혼이라 홍신의와ᄅᆞᆯ혼이의탁ᄒᆞ도다
군바경도초ᄃᆞ혼ᄒᆡ여 존네ᄂᆞᆫ경홍이ᄃᆞ혼을불으지말나
ᄃᆞ혼ᄀᆞᆫ미ᄅᆞ라 ᄃᆞ혼이평산ᄒᆞᆫᄃᆞ잔

홍이노틔을맛치며황건새초왈낭은강남사람이라ᄒᆞ되
경도ᄒᆞ군본을아는다이쇠홍낭이ᄲᆞᆯ은강을님ᄒᆞ엿는
의가득ᄒᆞᆫ통랑이강리울음ᄒᆞᆫ섬ᄉᆞ을ᄯᅳᆸ븐지라그
섬ᄉᆞ을ᄲᆞᆯ혀곳지엉더니그무로물인연ᄒᆞ여훗연이
리왈원이ᄌᆞ손이옛적의삼녀ᄃᆡ부초나라충신이
러니충셩을다ᄒᆞ여회왕을셤기다가회왕이참소을
듯고강상의방츅ᄒᆞ니삼녀ᄃᆡ부ᄲᆞᆯ근마음ᄒᆞ리될지
심으로탁쇄의지조을보젼케못ᄒᆞ여보믈소흠ᄒᆞ여회사
부을짓고돌을안고오월오일의강심의ᄲᆞ지니후인
이원녀이츅으로불상이여겨그날이당ᄒᆞ면흉강심
비을ᄆᆡ여흉흉을위로ᄒᆞ는노름이나굴삼녀내

의영혼이신쥭졍강에복의라셔ᄒᆡ여진
쎄여ᄒᆡ온불변ᄒᆞ나ᄎᆡ,홀안낙ᄒᆞᆯ지라엇지탕ᄌᆞ범
부의ᄃᆞᆺ더올희롱ᄒᆞᄂᆞᆫ물결을희젹셔건지물바
라ᄒᆞ리요이ᄯᆡ황쵹이다ᄒᆞ여셧시나홍의ᄯᆞᆯ의ᄉᆞᆺ의
셰몰알아드르리요우음을ᄯᅴ여왈내셩쥭을보쇠
소년공명이져ᄯᅢ에잇셔복귀쥭ᄒᆞᄂᆞᆫ영혜구ᄒᆞ나엿
지굴원의쵸혼ᄒᆞ불우ᄒᆞ물고통ᄒᆞ여라ᄒᆞ후쵸강샹롱
원을가라되ᄂᆞᆫ우쵸졀ᄂᆞᆫ대가인을잇글어ᄒᆞᆫ번우
으ᄆᆡ,츌요궁의ᄲᅡᆫ화방창ᄒᆞᄂᆞᆫᄒᆞᆫ번셩ᄂᆡ구산셜이ᄂᆞᆫ
ᄐᆡᆼ아ᄅᆡ십지옥라이복지나올ᄲᅮ올져여ᄂᆞᆫ슐리라
쥭ᄯᅡᆨ혈강쥴의소슬혈쥴홍을발ᄒᆞ리요이ᄯᅢᄂᆞᆫ

잇가다만평와작ᄒᆞᆫ뜻을오날ᄂ작되지못ᄒᆞ오니원
컨ᄃᆡ셕상의거문고을벗어두어곡조을알외여
화답ᄒᆞ던거샹으로샹승의줄기시믈돕ᄉᆞ올가ᄒᆞᆯ
나이다황ᄌᆞ서홍의화ᄒᆞᆫ거ᄉᆡᆨ으로거문고타기을
쳥ᄒᆞ여물보니ᄌᆞ긔와롱을두ᄒᆞ여회심ᄒᆞ여반가ᄒᆞ되
순여온을노고솔왈홍낭은견ᄃᆡ녀중호걸이오장
단아는병기조ᄃᆞ니일족황셜쳥누의편답ᄒᆞ여
병기일등읍의날기내와제조잇는내졀을못ᄃᆞᆯ낸젹업
뎌이제낭을만난후일이일은짐ᄒᆞ여가장의ᄒᆞ면거조
을량ᄒᆞᆯ번ᄒᆞ여엿ᄐᆡ이가지회심ᄒᆞ여나이는다낭의유
이라졀화의복ᄒᆞ여엿ᄌᆞ오니비록부지치못ᄒᆞ야

이날슐강리하여소상반쥭의가을비한뎌지ᄂ평ᄉ
의한홍이여안나강상나무잎회셧뎌져ᄂ기러기강
상의소리하ᄂ날아가와상지인이쥭연변색하ᄂ소
향기내를운무당이운물을내옴어려자홍낭이라
서쥭조올변하여쇼현을리쥭ᄃ리현을을비쥭조을
알외나기음에비창강리하여ᄃ문ᄉ앙의갈마음을의
논하ᄃ연남빅일의가쥭을화답하여불평현심ᄉ
와오열현흉증이일좌을경동하니슈중제인이
일시의쥭연불낙이라홍낭이거몽ᄃ을씰뎌ᄃ배
창강ᄃ현귀음이낫속의가득하여길게한마듸조뢰
하여뵐옥ᄂ창현ᄒ홍을내쌀히ᄀ곡지을원이하
셔ᄃ그마음에닿으게하여서눈량활현쇄계의일신쥭하
혈현이업ᄉ니평강어복의쳐와굴삼녀ᄋ울

슌풍을지어바다건너나죽은후신체을건져
말아죽은후라도고절헌혼의불게허을쇠말을밧
ㄷ배니다의엿허져지나가련하다셕옥나화로다오호
쳐라홍의셩명이엇지편근하편을보라
　강남홍탁션백은동　냥창국대젹자신녹
시의강남홍이장과홍장의몸을날내느니좌우무
심홍대경창황하여급히붓줄내하다가날니기비
로갓흐니봇빗쳐물결의나로이나붓거며간숫지엉
난지라좌우실색하여려미다낫슬가리는이엉울니
엽슨낭은셕야연실색하여손궁을호령하여건져
라하나쟐쳔편배을즉해강홍을덥히츠엉다거척
도엽슨모든손궁이셔로뢰보아와손람이불의새바

빠의부귀화외들나ᄒᆡ셰도사양치아니ᄒᆞ믄녹
상일에나가소졔왈강남ᄉᆞ람은물의당ᄒᆞ기을여
ᄒᆡ강섬의숙섬니헝ᄒᆡ는니잇다ᄒᆞ니엿나아라보라
셜른쥐겸을ᄒᆞ다가왈당수ᄒᆞ여볼ᄃᆡ예다소졔왈곰
ᄒᆞ니빗비열연을ᄎᆡᆫ거ᄒᆞ타셜취왈그신을곳둘ᄒᆡ
두지못ᄒᆞ리로소이다소졔아ᄋᆡ을셩거ᄂᆞᆫ왈별어ᄋᆡ는
갑ᄡᆞᆯ로빗비주ᄒᆞ여오라ᄉᆞ지국쳑은ᄒᆞᆨ로로타ᄒᆡ
졈두웅낙고나가더니유턴ᄒᆞᆨ한네ᄂᆞᆫ물다ᄐᆡᄂᆞᆫ들어
와소졔을보아왈ᄆᆞᆺ잠이ᄂᆡ졔남ᄌᆞ는업ᄂᆞᆫ잇시니광호
의주술리는매져다물속으로오록셤나을당나ᄂᆞᆫᄂᆞᆫ줄이
르기을숙중야차소삼낭이라ᄒᆞ나이다소졔기기그ᄂᆡ로
물더욱신긔이여겨불너보니그ᄂᆡ져선장이팔ᄎᆡᆨ이

오내대혈은이누로ᄅ얼은골이검은것화갓가이오뷔비량
니축비허나쇼졔본왈그디는ᄒ믈축을횡령다허나
사랑을구허다가되왈일축이쳔ᄒ강어리의셔구슬을
킨다가이숨을받나셔로최환삼십여ᄌ의숄ᄌ단니
다가잡아어리의메ᄃ나오다가돼벅로축의빌나여다서
축심여되울과여물빗과나오니단신으로는줄활실나
울횡희나에야쇼졔로ᄃ긋과왈게삼낭의축ᄃ혈일
울부탁허나니손이잉회쌀낭이의온ᄌ이심낭을축니
이거시손쇼희나셩공희기혼제졍으로로희나니활인거ᄂ
이혹지아니리랴이외쇼옥울일으나삼낭왈빗탕이쥔
심희여쇼졔의부탁울여거지쌀내이다쇼졔져삼낭
북희더라삼낭이불가외나가반일울렁도희

을수졍ᄒᆡ다가날에느긘혹일염ᄒᆡ쳔의일러기
내울붓드러울너거흘삼낭이ᄉᆡᆼ각ᄒᆡ되이반다시극
졀이이스도다ᄒᆞ더믈숙어드러가그비밋ᄒᆡ엿되엿더
니죽쿨의쇠금셩이나며몬두괄리타호ᄒᆡ으ᄅᆞᆫ흘내
일더니인이쇠나텨가눈괴파곱ᄒᆡ가거죽쳐엉드샬갓
킈거여흘셔간의죽질네울힝ᄒᆡ여인ᄒᆡᆨ여엿는데
가숙지의올으텨ᄒᆡ러니일염소쳔이셔오며낭디여벽
노ᄒᆡ러ᄒᆞ며나ᄒᆡ오게흘삼낭이스ᄉᆞ로ᄒᆞᆫ며활죽우손팔을
구ᄒᆞ파기인이느ᄒᆡ을곳치며비을ᄒᆡ여오라흘삼낭이
영은ᄒᆡ죽충의을나나ᄒᆡ노그보내온번운듕ᄃᆡ고룸유
인이죽로ᄒᆡ쳔되엿난지라밀은도ᄒᆡ을구ᄒᆡ여누이ᄂᆞ
ᄒᆡ골외상을벗제밀나며ᄒᆡ셩ᄒᆡ기울기다ᄒᆡ여용

이윽ᄒ여 왈 엇더ᄒᆫ 낭ᄌᆡ완ᄃᆡ 옥을 ᄭᆡ나시노 삼낭 왈 나
ᄂᆞᆫ 주슐 키ᄂᆞᆫ 사ᄅᆞᆷ으로 ᄭᅢ침 주슐 키다가 낭ᄌᆞ을 만
나 주ᄒ여 가ᄂᆞᆫ 중 엇ᄶᅵ ᄃᆞᆫ 븐은 모로노라 이비ᄂᆞᆫ 어ᄃᆡ로 가나뇨
여ᄇᆡᆨ 왈 우리ᄂᆞᆫ 그기 장ᄉᆞᄂᆞᆫ 사ᄅᆞᆷ으로 강호의 셩장ᄒ여 슈
환당ᄒᄂᆞᆫ ᄌᆞ을 만내 보앗사오나 일어ᄒᆫ 거동은 쳐음이
라 이졔 쳬인리 염으니 엇저 구원ᄒ여 주ᄂᆞᆫ고 삼낭 왈 그
곰 기ᄃᆞ리ᄒ여 인손을 치린 후 다시 의논ᄒ리라 ᄒ고 슉죽을
만쳐 보내 ᄉᆡᆼ거 잇거ᄂᆞᆯ 삼낭이 귀ᄒ여 ᄒ여 슉죽을 긔무로
더니 슉욕의 졍신을 차려 눈을 ᄯᅥ 삼낭을 보내 ᄒ 중의
ᄇᆞᆯ노ᄇᆞᆫ 왈 노랑은 엇더ᄒ여 신숀탕으로 죽은 목숨을 구ᄒ
시노 삼낭이 오ᄃᆡ ᄒ여 이목을 ᄭᆡ여 ᄒᆫ리 쳐 ᄇᆞᆯ ᄒ여 ᄃᆡ낭ᄌᆞᄂᆞᆫ 졍
신을 진졍ᄒ여 ᄒᆫ이 ᄇᆞᆯ ᄒ여 쇼세ᄒ여 ᄌᆞ여 보을 도라

보아왈 날이 테 불은 인개 허여 이곳의셔 밤을 지
닐괴라 텨낭져ㅣ 반ᄉᆞ 뎌샹이 흥고을 ᄉᆞ이ㅣ 미ᄉᆡᆼ 흐니
흑시 ᄎᆞ흉의 방ᄂᆞ흥 졔기 이ᄂᆞ나 어뵈 주어 조각 ᄉᆞᆷ걍을
흑거ᄉᆞᆯ 굴노 바람을 ᄲᆞ는어 부를은 ᄉᆞᆷ짐 밧괴 셔길을
져ᄂᆞᆯ 벼포 ᄉᆞ삼낭이 가ᄇᆡ나 물어왈 그리 향ᄒᆞ고 ᄉᆞ쇼 ᄒᆞ고
을 ᄉᆞ쳐을 아니다 흥이 ᄂᆞᆯ난왈 어ᄌᆡ 굿ᄂᆞ다 삼낭여을
ᄉᆞ쳐의 부탁으로 구ᄒᆞ연 ᄉᆞ연을 일ᄂᆞ이 ᄇᆞᆯ을 ᄂᆞ 용이 우열
탄식ᄒᆞ는 물을 흘니 왈 나는 다 포 네 인 너라 항ᄒᆞ기 네
강남흥이 그중으로 져ᄒᆞ는 ᄌᆞ결을 고시 ᄇᆞᆯ ᄒᆞ여 삼낭여
뒤겅왈 열ᄉᆞ 낭ᄌᆡ 죄일 방ᄎᆞᆼ 냐 강남흥이 아니 이ᄉᆞ가
흥왈 그러허 거니와 어지 이연 ᄂᆞᆷ 삼낭이 ᄂᆞ어왈 낭ᄌᆞ

왈어더헌형연이어데올찾난즈삼낭왈우레
는강남스탕으로홍낭의쏘ᄉ기에이곳의와ᄉ서어이곳지
냥이무어시ᄲ쥭인형시는목어서라허난놀기안이ᄅ스
ᄅ더경왈에곳은남방나탁ᄒ히허는싸이요국론는ㅡ
탈ᄅ국이내강남셔늑노츠삼ᄲ여래요슥훈ᄂ는칠
ᄲ나나된여허내출삼낭왈우리ᄇᄂ손여셩이갈빈을
아지못허나일안ᄲ즌ᄂ갈가허노라목인어더자허
ᄅ일강리실을쇠로허족의갈냥으로쳠허올령ᄅ
돌을쌔아벽을테ᄃ뒤로절어근뢰을테ᄅ홀노방셔
이열시ᄲ불기어돼우나좌을평허여슈령이발음열ᄋ
며방라비련ᄃ기와나는실나물이둥히벽을길이엉어
라삼낭을베풀괴며으나롱은ᄲ지못허ᄅ경신이혼ᄅ

ᄒᆞ여부어사나우음ᄒᆞᆫ거올리흥ᄂᆞᆫ한바람이괄음을일ᄋᆞ우
저곳ᄃᆡᄅᆞᆯ삼낭다ᄃᆡ올라광운날노인ᄒᆞ여ᄉᆞ모당이엿
셩ᄒᆞ나이못ᄒᆞ여알시이엇지볼ᄭᆞᆯ곳ᄒᆞ리라나ᄂᆞᆫ죽기을원
ᄒᆞᄂᆞᆫᄉᆞ람이어죽으나언통케ᄂᆞᆫ나노광을아모조록ᄉᆞ
라고국의도라갈도리을ᄉᆡᆼ각ᄒᆞ라삼낭이ᄃᆡ연ᄒᆞᆫ올나
ᄂᆞᆫ광ᄉᆡᆼ은본ᄃᆡ든평ᄉᆡᆼ을오ᄉᆡᆼ은쾌락을갓지ᄒᆞ리니이
곳의뫼이놉흔물이ᄇᆞᆰ아반ᄃᆞ시도란흥당이잇실거ᄅᆞ
병일흔이차져보아의탁ᄒᆞ여쳐ᄂᆞᆫ이가ᄆᆡ조흔가ᄒᆞ노
와셔ᄌᆞᆫ의ᄂᆞᆫᄃᆡᄂᆞᆫ츤안을지내ᄂᆞᆫ이일죽인다ᄒᆞ되이ᄂᆞᆫ쳐의홋
시승녀도ᄉᆞ이잇난ᄃᆡ부ᄅᆞᆫ니죽인일이곳의본ᄃᆡ승녀도란ᄋᆞᆫ덜
ᄉᆞ나산즁옥벽ᄒᆞᆫ의홋시ᄎᆡ순이잇서나울우즁ᄎᆡᆨ이왕ᄂᆡ
누졍ᄒᆞᆫᄒᆞ니이러낭인이국인을각별ᄒᆡᄃᆞᆫ죽강을

경ᄃᆞ산경을차져지향무쳐로가여나ᄋᆞᆫ한곳의이
로나술이갑ᄂᆞᆫ길이업거ᄂᆞᆯ암장의안ᄌᆞ쉬더니문득
보니한즁ᄀᆞ시네눈흔산봉으로나리거ᄂᆞᆯ홍낭이볼
나가ᄎᆞᆷ을ᄯᅦ으며손으로물을우희ᄒᆞᆫ갈ᄀᆞᆺ훨셔그물외쳐
향니추비터ᄃᆞ리펌편기옹이업셔지니홍낭다시낭이
물ᄅᆞᆫ왼을차지되숙빅여보올올나가ᄋᆞ동하이엿
ᄃᆞ동ᄒᆞᆼ울차례ᄃᆞ터가나거화이로만발ᄒᆞᆫ더평리졀
승허여남방비습ᄒᆞᆫ거온이엳셔졍션이상쾌ᄒᆞᆫ지
라삭낭을도와보이와ᄂᆡᄃᆞ국을ᄯᅥ나고오뢰져인ᄂᆞ남
방ᄒᆞᆼ도의거온어쪄상쾌더니이곳은별유ᄒᆞᆫ지비연간
이라허며추심보을허여올ᄂᆞ나가여쳔네엿ᄃᆞ시네우외
ᄂᆞᆫ반셰이ᄭᅡᆯᄂᆞᆫ셕상의일ᄃᆞ동쳐와울다리거ᄂᆞᆯ

곱허여다리을뒤정허나슉사이가련허되공쳬ᄉᆞ랑
거ᄒᆡ간절허여밤이면잠을일우지못허더니일야
는셰안을지여ᄉᆞ봉비몽간헌곳의이ᄅᆞ니ᄒᆞᆫ낭이강상
의용녀화생리허엿거늘헌가지을싸ᄅᆞ쳐허더니
군두랑ᄒᆞ홍이대작허여파되홍용헤더니쏫가지ᄯᅥᆨ
거허강즁의ᄲᅡ지거ᄂᆞᆯ낭음의셔볼허여놀나ᄭᆡ되니헌
숨이라ᄂᆞᆫ음의싱각허매반다시흉몽이라불열허여
허여ᄉᆞ요일후황극침뒤흥낭의셔간을가져이ᄅᆞ니
공쳐받져쇠간을헤여보니터ᄯᅥᆺ시되
쳔ᄂᆞᆫ형님강남ᄒᆞ홍은내냥되거바허여ᄅᆞ실부못허여여져
셔ᄅᆞ몰을모ᄅᆞᄂᆞ지라ᄲᅱ철누워ᄲᅢ지니로황후의

도라오는 행인을 보지 못하나 어부근혼에 영욕을
이졋시나 백마한조의 여한을 난쉴이라 바라런디
승은 현형을 유젼치 아니시고 횡은외 듕을 ᄉ
옵의 ᄌᆞ로 도라 오시는 날 ᄅᆞ인을 거졀ᄒᆞ신 일 ᄇᆞ리디 ᄆᆞᄋᆞ
로 강상ᄃᆞ회을 위ᄒᆞ여 ᄉᆞᄊᆞ 형이 ᄎᆞᆨ은 혼이 아니로ᄃᆡ
엄신ᄎᆞᆨ 발힐 ᄇᆡ 아니나 만일 ᄂᆞᆫ 분 ᄒᆡᆼ ᄂᆡᆼ이 반별 ᄒᆞ여
니 변ᄇᆡᆼ 부의 발원 ᄒᆞ여 ᄎᆞ 셩 ᄎᆞ기 온 인연을 ᄆᆞᄌᆞᆼ
으로 ᄂᆡ 약혈가 ᄒᆞ나이다 일 ᄇᆡᆨ ᄂᆡᆼ은 ᄌᆞ은 리 ᄎᆞᆼ 변련
으로 쓰오는 길이 가는 ᄌᆞ ᄌᆞ운 ᄀᆞ 원의 연ᄀᆞ 지회을 일
게 ᄒᆞᆫ ᄎᆞ지 ᄏᆞᆯ을 녕ᄒᆞ여 가삼이 ᄇᆞ혀 싱 ᄂᆡ 소별외 ᄆᆡ
응을 다 못ᄒᆞ나이다 ᄒᆞ엿더라
ᄎᆞ시 ᄂᆡᆼ 곤 져 간 ᄌᆞ의 약연 져 상ᄃᆡ ᄒᆞ여 셔안을 ᄎᆡ ᄒᆞ며

셕외얌강평시와앙비거졀화츙이라현굴지샹
셰롱지붓슬더니연노평니별헐쇄셔번부러ᄒᆞ
탄식ᄒᆞ더니이엇지연참이아니리오연즉이담쇄
을ᄒᆞ나귀가보ᄒᆞ옵고ᄒᆞ나고쇠졸내보내믈온당치
아니ᄒᆞ다ᄒᆞ여 줄ᄂᆞᆫ이부어졸노심츙평회을쇄쇠죵두
을죽니기쇠의왈
홍낭아네날을속이미나그맛나미엇지그리거이ᄒᆞ
ᄂᆞ그셕아미엇지그리더ᄃᆡ던ᄯᆞ며그진ᄒᆞ미엇지그리ᄒᆞ
졍ᄒᆞᄂᆞᆫ그바ᄅᆡ미엇지그리무심ᄒᆞ던ᄃᆡ그졍츙ᄂᆞᆫ미
그ᄒᆞ리벽ᄂᆞᆫ의잇지아님ᄂᆞᆫ가줄ᄂᆞᆫ거시그바리미그이르미고
되옵ᄂᆞᆫ이ᄒᆞ노슉이미아닌가셜이로다그변화ᄒᆞᆫ거샹
라영발ᄒᆞᆫ츙신으로혀미초슐ᄒᆞᆫ강충숙

부왼귀되여쇠빠히우지는그룬이되엿나니
그리홍병헌셔질다헤일헌셩흡이며발근재로
조현아우광양뎨의원을흡어다혀리오슬픔이라
슬변녀의셔중소의불병혀근용모거상을생각흔
별그렬난엽슐듯흔내진몽을굴다려물으며
히게길졍혀리오소람이지거울홍이얼블그소셩령
욕을갓지혀뎌쥐이여늘이퀘혈나지남북의션
소을아르혀보르나이블내올젹하리 날을 ᄢ오일시텽과
로벽변뇌약을이르내다이는ᄃᆡ쳐바리ᄢ라금일
눈물이엿지능로스의효쳑지심이라혀려오빅여
의거믄르룰이영스믈술혀노화잠혀그키의숙향
● 쇠올봇치놓아사린반갑이보기울바라노라.

공쥬 쇠간을 광ᄌᆞ을 주내 밧비 가서 다시 소식을 전ᄒᆡ
타챵ᄃᆡ하작ᄂᆞᆫ 황ᄒᆞᆼ이 도파가 나라이 ᄒᆡ 연옷이 펴ᄀᆞ이 앗
서ᄌᆞ챵의 심회을 도ᄋᆞ나 경ᄲᅧᆼ간 광독을 이다려ᄃᆡ 황
성기ᄉᆞᆫ 돈 ᄭᅵᆼᄃᆞ리 도다와 흥의 이ᄉᆞ희 문ᄃᆞᆫ 대쇠로 실ᄉᆡᆼ비
통ᄒᆡ나 ᄒᆞᆫᄃᆡ 비조초옹ᄌᆞ의 날을 ᄉᆡᆼ각ᄒᆞᆫ즉 쳘을 자
시ᄆᆞᆺᄀᆞ 공ᄌᆞ의 쇠간을 니여 주내 왈 이 공ᄌᆞ의 쇠간이여
장ᄒᆞᆺ시게 ᄒᆡᄒᆡ리오 옥이올내 왈 우리나라 팡셩의
시리ᄒᆡ 심ᄒᆞᆫᄂᆞᆫ 남ᄌᆞᆼᄂᆞ다 그 쇠간을 영연의 그리 이ᄃᆡ퇴
노ᄒᆡᄒᆞᆫ 이의 쇠간을 탐ᄒᆞ의 노고 일광ᄒᆡ 주ᄃᆡ 그 쇠간을 감
초니 쳔이 ᄋᆡ울 소제ᄒᆞᆼ을 이지 못ᄒᆡ매 연후야 광동을
조운이 너져 보ᄌᆞᄋᆡ 독ᄃᆞ의 ᄌᆞ을 ᄌᆞ구ᄒᆞ을 ᄒᆡ던니

도평의쳐을ᄌᆞᄂᆞ의긔평이각근의죄알이라병
부상셰로부르셰니을중이가권을머나펴을나갈셔
연옥이울네초제울ᄒᆞ라가기을횡ᄒᆞ니ᄒᆞᆫ이늑은
이너거ᄒᆡ락ᄒᆡ니옥라광되겁의와쇠손을숙읍
ᄒᆡ여을복얼횡을쳐라황션으로울나오니라이ᄒᆡ
낭곤졔홍의ᄂᆞᆫ성을몰나동ᄌᆞ을탕즉ᄌᆞ본니여
ᄉᆞ식을알ᄃᆞ졔ᄒᆡ더이일ᄂᆞᆫ은ᄒᆡᆼ즉광즉연옥에ᄉᆞ옥
ᄒᆡᄃᆞ와뵈올(오나)공혀화약ᄒᆡ몰이거지못ᄒᆡᆼ독와연옥
이울네쳘ᄒᆡ니근ᄒᆡᄉᆞ한누숙을풀니ᄌᆞ왈니의
복셔을보니못리이여알리라ᄒᆡ현독ᄉᆞ연을ᄌᆞ시살
ᄒᆡ다옥이울네홍이궁근을보기ᄃᆞ광빙독무ᄒᆡ
뎐ᄉᆞ연다을초죄을ᄉᆞ에여지겨조ᄃᆡ평ᄒᆡ로ᄉᆞ연파

황후의변을만나일축하고신해가지화지못한은
년을일흔히고허너곤리화허탄식하고왈니적을뢰
바리도다너엇지경셩의오노욱이을호체호비의축
인영은물축년이너기슬거둑어오너어다삼나의은순
해의규중너흔초신하여화해물탄상해여호낭의
로감이발로물알너호라하내공제욱라황독을보
아왈키엇지너의을죄아뢰는와는아직은기축인즁
아엇서너을부의고탁해여짓기을기라뢰라욱라황
되는해흘르가여뢰이러즈려나라의화변방을평정
풀르하며을보이설서펀제평넘해는방다스의굴을
쏫노시며사회을부로서여강욱의갈방다서구름
가스며화을뢰의알 는르로회국지화불일해

너어는 반다시 션후완급의 잇난거시 삽거이
뎐은 무삼도로라 슌리ᄒᆡ 그러ᄒᆞᆺ시리ᄒᆞ고 ᄒᆞ물며
ᄒᆞᆫ당이 동구는 어지러ᄒᆞ여 오리 볼고 오란ᄒᆞᆫ보 길이 신로
이륙위ᄒᆞ여 모연ᄒᆞᆫ 일신으로 ᄆᆡᆫ번을 거나리 무관
ᄂᆞᆫᄃᆡ허ᄒᆞ여 그치지 평ᄒᆞᄂᆞᆫ 도리의 션후완급을 아지못
ᄒᆞ여ᄂᆞ니 ᄅᆞᆷ일라 셔예ᄉᆞ줄을 이러어 반다시 훌ᄅᆞᆼ의 강나
ᄒᆡᄂᆡ 잇실거라 각ᄂᆞᆫ 은혹치 ᄆᆞᆯ고 직언평논으로 그간
ᄒᆞ여 점의 허믈이 업게 ᄒᆞ라 이러ᄃᆞᆺ시 ᄌᆞᆯ ᄒᆡ나미
낭중ᄌᆡ 별논이 ᄉᆡᆼ각난 비 엽시 못ᄒᆞᆯ ᄃᆞ려 ᄒᆞᆯ시 가와
슉텬연을 일외니여 ᄎᆡ옴 보견ᄒᆡ 칠별의 화ᄒᆡ
믈욕새 비ᄃᆞᆼᄒᆞ여 이목이 황ᄒᆞᆯ ᄒᆞ거늘 그 글의 ᄒᆡ

강긔록이라.

신은듯ᄉᆞ오니입즁의쳔ᄒᆞ。ᄉᆞ리믄맛당이ᄒᆞᆫ날법
을법바ᄃᆞᆯ지라ᄌᆞᆨ악의왈을지이롱우러ᄃᆞᆫ고
거이와쳔이라。ᄉᆞ시ᄒᆡᆼ언ᄒᆞ며빅물이ᄉᆡᆼ언이라
ᄒᆞ니하날이ᄆᆞᆫ물을화육ᄒᆞ시뫼고롱우로을
퇴게ᄒᆞ여ᄉᆞ로셩져ᄃᆡ을나되오실ᄉᆡᆼ아니라반다
서나평으졸로평ᄒᆞ여ᄉᆞ졍동ᄒᆞᄂᆞᆫ위엄이ᄂᆞ신후사
시을ᄒᆡᆼᄒᆞ여비체을일치아니ᄒᆞᄂᆞᆫ만물의셩[illegible]쟝
ᄒᆡ비ᄉᆞ로동ᄒᆡ야나그리ᄒᆞ며ᄂᆞᆫ조、졸ᄒᆞᄂᆞᆫ셩쟝ᄒᆞᄃᆞᆫ족
동온ᄉᆞᆨ살ᄒᆞ며롱고거운을항ᄒᆞ여조화을베
로ᄅᆞᆯᄃᆞᄒᆡ대네라ᄃᆞ지셩왕이ᄂᆞᆫ을본바ᄂᆞᆫ

졔긔강울쇠올지니황뎐뎌옛일을고증허
티이뎌당우이쳔은덕으로교화허드하은에후는공
으로다스리시니이일은왕도오진나라는힘으로이더
나드힘으로직희니일은퀴되라한나라는지혜로
광엽혜드지혜로숙셩허니일은왕폐변울허
비오진당은실녀복물허드디승은병여토박승
니이는후왕후퀴허여독실이상빈이회당우씨
쳔은홍숙이출박헌드로교화허드하은이후는인
물이홍병헌드로공으로다스리드쳔숙이퀴로괴나
라의밋쳐는홍숙이강쎵헌드로힘으로일어나고
한당홍이후는인긔강쇠허여출강이상빈헌후

나경쳔을쥠각ᄒᆞ여지혜ᄅᆞ다스ᄐᆡ시파왕조ᄂᆞᆫ일
어나니더된ᄃᆞ로누라니장원ᄒᆡᄃᆞ키조ᄂᆞᆫ그일어나
니쉬운ᄃᆞ로그ᄇᆡᄒᆡ니즙ᄒᆡᄂᆡ왕조ᄂᆞᆫ나종에어ᄂᆞ게되
ᄃᆞ퀴도ᄂᆞᆫ나종에리ᄒᆞᆫᄒᆡ나에ᄂᆞᆫ쳔재운ᄉᆞ긔쇼공ᄂᆞᆷ이
부동ᄒᆡ먹국가회란이쥬모가라로니라미쳐왕도ᄂᆞᆫ
경범이온케도ᄂᆞᆫ권술이너경권이독충ᄒᆞᆫ듯이설
ᄒᆞᆫ쳔인지되니신운쇄ᄒᆡ두왕ᄏᆡ면옹은후세지국
ᄒᆡᄂᆞᆫ불여거병이여놀ᄂᆞᆫ일의오리ᄒᆞᆫ의ᄂᆞᆫ의홀ᄒᆡ
ᄒᆞᆫ왕ᄒᆡ불ᄅᆞ쥬ᄒᆡ여그발삼을ᄃᆞ룰은ᄅᆞᆨ오술고ᄒᆞ
의갓강ᄃᆞ그실ᄒᆞᆫ을의논ᄒᆞᆫᄃᆞᆺ강옹지괴의밋재봇
ᄒᆞ니그칭고ᄒᆡᄂᆞᆫᄅᆞᄂᆞᆫᄒᆞᆫ성의간ᄒᆡᆨ으로뎌ᄃᆞᆼ

당ᄒᆞᄃᆞ고리해잇ᄂᆞᆫᄌᆞᄂᆞᆫ로심모ᄂᆞᆯ자랑ᄒᆞ며
모당으로발ᄒᆞ변직책이큰ᄃᆞ체외총ᄒᆞ목로세
무ᄋᆞᆯ임의뭇지아니ᄒᆞᄃᆞ승평을누려안일ᄒᆞ믈
일삼으며ᄯᅩ한장원한념녀엾스니뒤각으로
발ᄒᆞ변서출역이시체을도라보아언어ᄒᆞ도을
임의조놋ᄒᆞ며젼ᄒᆞ출책이젼폐을출ᄒᆞᆫ즉
여일여일묵의축견에엾스니ᄀᆞᆫᄉᆞ숙형으로발
변란각의계최조의논ᄒᆞ인ᄌᆡ의현복을뭇지
잉여ᄒᆞ며ᄂᆞᆫ붕릉박으로두실을고ᄯᅩ계ᄒᆞ민원
유책을예ᄉᆞ조이알(혁이)니ᄉᆞ습으로발ᄒᆞᆫ진되고중두셰
ᄒᆞ물조롱ᄒᆞ으로현진축ᄒᆞ물회거ᄒᆞ여출현ᄒᆞᆫ

는비단궁녀와거은이ᄒᆡ상ᄒᆡᄃᆞ젹현호손로ᄉᆞ기ᄒᆡ
녀의셔불을ᄒᆡ며홍슉으로발ᄒᆞᆯ진ᄃᆡᄉᆞ회칠망이
왕화을보로ᄃᆞ제장군촐이승평ᄒᆡ홀누편일의국
바ᄒᆡ는그ᄅᆡ영ᄃᆞ방비ᄒᆞ는경불이ᄒᆡ슉ᄒᆡᄃᆞ지용
으로발ᄒᆞᆯ진대빈간의ᄎᆔ렴ᄒᆞ는원망이ᄭᅳᆫ치지아
니ᄒᆞᄃᆞ국총의얼옹ᄒᆞ는쟉ᄒᆡᆨ이복죡ᄒᆞ여황놈
이웅ᄒᆡᄒᆞᄃᆞᄐᆡᆨ흉ᄒᆞ미엄슨ᄃᆡ회심중의쳐ᄒᆡ사비
륙신생네지ᄒᆡ시니좌우의보로ᄒᆞ는ᄌᆡ이녀번어지
쳔ᄒᆡ양의기을아로ᄉᆞ리잇ᄃᆞ젼호지신이다만ᄉᆞ회지
부와발슌지귀발발습ᄒᆡ며경화세편안열ᄒᆡ물
듕습ᄃᆞ발인리상의국간ᄒᆡ몰발ᄒᆞᆯ젼엽

스니비롯ᄉᆞ란 ᄎᆞᆼᄎᆞᆼ누니ᄂᆞ뇨 이쳐ᄒᆞᆫ서ᄇᆡᆨ누
슉의병침이 졀ᄂᆞᆫ히시ᄆᆡ ᄎᆞᆫ병술로의빈우곡[국]게을
싱각ᄒᆞ시나 날이 밝음을 즈유ᄀᆡ복 연쳔ᄒᆞᆫ 별반경
ᄂᆞᆫ이 업ᄉᆞ실지니 이난 무ᄒᆞ리라 화우의 쳔양ᄒᆞ미
업쇄진쳐 뫼뭇ᄒᆞ미라 오회라 슨희지량 다ᄒᆞᆫ빈
지ᄎᆞᆼ은 ᄌᆞ고 질ᄂᆞᆫ 즉ᄒᆡᆨ을 싱각ᄒᆞ번 졔ᄒᆞ거ᄃᆞᆯ
녀러울 폐ᄒᆡ 잇ᄉᆞ외 그마음을 ᄒᆞᆫ반이 롯ᄂᆞᆫ 방심ᄒᆞ셔
되엿ᄂᆞ돈 범의 일을 유벽이 사ᄌᆞ위자 복이라 ᄒᆞᄂᆞ니의
복은 ᄃᆞᆫ[년] 뫼지 거울이 으ᄐᆡ국가 강녕이지 강녕을
강ᄇᆞ으ᄆᆡ 거울을 뇌운 후의 범녕이 ᄒᆞᆫ뎡ᄒᆡ 곤해일
ᄒᆞ나ᄒᆡ 일은 ᄌᆞ강이 ᄃᆞᆫ 이ᄋᆞᆫ 가강을 그ᄆᆞᆯ의 이ᄒᆡ

경되터물고 심되아니신즉갑이발숨헐변이아
나오나젼ᄀ긍ᄂ히요소박빙을밟는드시오뢰조라
소의게목드사열즉피진을복조시니신이엇지
졍식몰즉출숄패졸목터지엇가고려나세최텬
즈목과시즙편경츙은졸단척지졸장졸갓다
못알외온니신의발숨을오든지아니라즁서로
다시쳔쵸쳔장을열ᄃ무드시별듕즁의발숨을
다혀자혀시며별실이맛당이순양치아니뢰이다
이제상이쳔이졸을속ᄂ실세ᄃ통촌의하여한다는
현심의항지아니시ᄀ쵸오텰이업서현심이블
열허시더니광즁의졸을보시니몬져졀벌

반두왈셰셩인의날삼이되츈지도빼나여둔배흐
지발나눈엿저간술이쾌편쾌장국이뮈도울이슬슈
니오불가능비한나이오흉범의외복울일카듯보는
신하울평제는비여술창국이군부울그도짓간술
배불가능비롤이와북왼폐하는그다변울사
술슨반다순조군지순울삼게술초셔히니모다보
참지평슨노즐이되고즐운당쳑고지의홍니경롬
이도순즐여일반흉인의무뢰라흔병져죽이인죽
울아당즐딘언눈돈쳐조평울누국는죄즐이간신
울순리며곤곤울시기는여조평울탁난혀는괴라
나히방그슨울바남즐여아는거시만아며서달믄즐
내쳘셔셔로듀워즐슨쳔오주신으로예우즐셔더니
이알칭국와분징평즐의쩔은인형하편은